

소공동체모임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0년 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www.cathms.or.kr

- 03 소공동체 기도
소공동체 살림살이
- 04 복음나누기 7단계
- 05 복음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 방안
- 06 주일복음묵상 | 박철현 미카엘 신부(복신동 본당 주임)
- 1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찾은 양의 비유
- 13 가정기도 | OX퀴즈 대회
- 16 소공동체 배우기 | 소공동체는 어떻게 하나요?
- 18 함께하는 소공동체 | 이선화 데레사(산호동 본당 1반 반장)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 20 순교자를 찾아서 | 김길수 요한
정광수(鄭光受·바르나바)
- 24 육화의 신비

소공동체 기도

사랑의 근원이시며 친교의 모범이신 삼위일체의 하느님!
저희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소공동체 운동을 활발히 실천하여
친교와 봉사와 증거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오니
성령의 은사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복음 선포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소공동체 살림살이

주간	활동예정사항	나눔사항
연중 제5주간		
연중 제6주간		
사순 제1주간		
사순 제2주간		

복음나누기 7단계

1. 시작성가

2.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3. 복음나누기 7단계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모임에서 해야 할 활동에 대하여 토의한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4.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

복음나누기 7단계 자체 평가 방안

- 1단계** - 기도의 정신이 있었습니까?
-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까?
- 2단계** - 성경의 본문을 읽기 전 참석자들이 모두 성경 구절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 성경을 기도하듯이 천천히 잘 읽고, 말씀을 경청하였습니까?
- 3단계** - 성경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치는 사이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 단어나 구절을 소리 내어 기도하듯이 읽었습니까?
-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여 읽었습니까?
- 4단계** - 침묵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지는 않았습니까?
-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머물렀습니까?
- 5단계** - 진솔한 개인적인 나눔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나눔이 다른 이들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었습니까?
한 사람이 너무 길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 6단계** - 성령께서 우리의 활동에 관한 토론을 이끄시도록 했습니까?
참석자들이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지난 주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활동에 관하여 논의했습니까?
- 7단계** -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까?

“떠나 주십시오”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레지오 활동도 꾸준히 하시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다가 소공동체장을 맡으시면 안 되겠느냐고 넌지시 물어 보았습니다. 자매님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대답으로 정중히 거절 하셨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니 그 자매님이 떠오릅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랬던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신 앞에 선 예수님의 존재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자신에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얼마만큼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잘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청합니다. 죄 많은 사람이라서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에 결코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수님의 한 마디로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자매님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힘 있게 말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집니다. 물론 예수님과 비교조차 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드렸더라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자신의 그릇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우선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저의 존재가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에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용기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2월 14일 연중 제6주일

루카 6, 17. 20-26

행복

누구나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쉽게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찌면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게 필요해, 저게 있어야만 해.” 이런 조건들을 달기 때문에 결국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행복을 꿈꾸는 상태에만 머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 시인의 <남으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에는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만다는 시인의 언어 속에 녹아 있는 일상의 행복이 저에게는 늘 감동입니다. 행복은 그저 웃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조건도 그다지 요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굶주리는 것, 우는 것, 미움을 받는 것,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근원인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을 받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의 평화와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꿈꾸고 있는 행복은 붙잡으려 해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는 뜬 구름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나서려 하지 말고 곁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유혹

인간의 역사는 유혹의 역사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일에서부터 원죄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유혹은 끊임없이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탄은 교묘한 화술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하고 교묘하다 하더라도 유혹은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건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혹에 빠져 비극을 피할 수 없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유혹을 벗어날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안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유혹이 일어난다면 그때야말로 성경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은밀하고 간교하게 다가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또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다른 모습으로 슬며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는 일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유혹은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성경읽기와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막아낼 가장 강한 방패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나누어 봅시다.

2월 28일 사순 제2주일

루카 9, 28ㄴ-36

숫자 3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제자들입니다.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또 오늘 복음처럼 당신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일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두 제자 중 세 사람입니다. 어쩌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느님이시지만 위격으로 삼위라는 교리는 이성이라는 도구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보다는 신앙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 사람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도 어쩌면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닐까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도 꽤나 비중 있던 제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주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한 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싶다는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3이라는 숫자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숫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한이 아니어도 됩니다. 야고보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영광스런 천상은총을 보여주셨으며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3’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처럼 삼위일체 교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이 우리의 신앙에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나누어 봅시다.

되찾은 양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번 '나는 믿나이다' 1,2절을 부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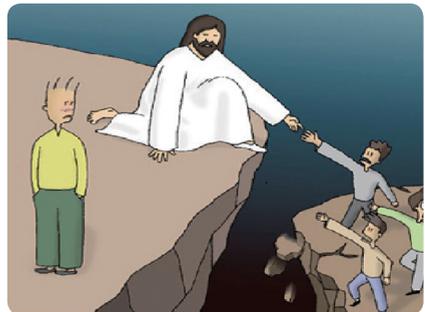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소서.
-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 시간 당신을 느끼게 해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18,12-14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 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 선포에 있다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인간 구원을 위해 주님께로부터 파견되었다는 본성에 의하여, 또 주님께서 만민을 가르치라고 명하신 바에 따라 복음 선포를 지속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만물의 창조질서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회복시키고 만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선교는 증거적 삶을 통해 자신의 삶 안에서 구체화 되어야 합니다.

자기 생활의 모범을 보이며 말과 행동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봉사적 삶의 증거를 보일 때 하느님 사랑의 선교를 구현시킵니다.

선교는 인간 정신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인격의 전체적 완성과 인류 사회 전체의 행복인 공동선을 지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가치들, 자유와 올바른 사용, 양심과 도덕성의 회복, 형제적 사랑, 하느님께 대한 순종이 존중되도록 인간의 여러 현실적 조건 속에서 봉사하고 투신하는 모습이 선교적 삶입니다.

또한 선교는 인간의 전인적인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발전은 인간 완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의 것을 포함합니다. 복음선교는 인간의 온갖 부자연스런 속박과 굴레를 벗어나게 하며, 빛과 생명과 자유 속에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시키며 인간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인간의 온갖 비구원적 상황으로써 이런 비구원적 상황을 만날 때 또 하나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인간답게 대우하고 보살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하느님의 말씀이 알려지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 각자 처한 상황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그 시대의 언어로 알려지고 그 삶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어느 수도회의 성시간 묵상글에서 발췌)

진행자 1) '길 잃은 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2)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보고,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기타토의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58번 '주의 말씀 듣고' 를 부릅시다.

OX퀴즈 대회

가정에서 온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 앉습니다.

가정기도를 시작하며

진행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중의 한 사람이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해 주세요.

말씀과 함께

진행자 한 사람이 다음의 성경말씀을 읽어주세요.

† 마태오 복음서 5, 33-37.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행자 이번엔 다 함께 소리 내어 다시 한 번 읽어요.

(다 읽은 후)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나누기

① 성경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② 실천하기 힘든 무모한 계획이나 지키기 어려운 무책임한 약속을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가면서 발표해 보세요.

함께 생각하기

진행자 오늘의 주제는 ‘예’ 할 것은 ‘예(O)’,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X)’라고 하면 되는 ‘OX 퀴즈 왕 선발대회’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답안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 란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토론을 통해 가족 공동의 정답을 선정한 후 ‘가족’ 란에 체크합니다.

OX 퀴즈 선발대회

	자신	가족
① 머리카락과 눈썹은 같은 속도로 자란다.		
②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세균이 많고 불결한 곳은 발이다.		
③ 다섯 손톱 가운데 검지손가락 손톱이 가장 잘 자란다.		
④ 악어의 성별은 부화할 때의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⑤ 복어 한 마리의 독은 사람 한명을 죽이기도 힘들다.		
⑥ 독사가 개구리를 먹다가 자신의 혀를 깨물게 되면 죽어버린다.		
⑦ 발을 따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자를 쓰는 것이다.		
⑧ 새들은 무중력 우주선 안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동물이다.		
⑨ 오른쪽 허파가 왼쪽 허파보다 더 무겁다.		
⑩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는 ‘반짝반짝 작은 별’이다.		
점 수	점	점

- 이종주의 「어, 그래?」 中

생각 나누기

- ①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답을 보면서 ‘자신’과 ‘가족’의 점수를 계산해 보세요.
- ② ‘가족’의 점수를 구하는 토론과정이 가족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며 민

주적으로 진행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③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OX 퀴즈 왕'으로 선발하고 소감을 들어봅시다.

진행자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OX 퀴즈 킹왕짱'으로 선발된 사람은 가족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다음 내용 중 마음에 드는 항목 한가지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가장이 책임짐)

발 마사지 10분	안마 10분	심부름 2회
업어주기 1회	발 씻어주기 1회	손 씻어주기 2회
포옹-뽀뽀 패키지 3회	산책 30분	책 읽어주기 20분
외식 1회	영화관람 1회	노래방 1회
편지쓰기 1회	여행 1회	사랑담은 문자메시지 10회
7일간 하루에 한번 이상 사랑한다 말하기		
칭찬 50가지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기		

❖ 가족회의

진행자 가족회의의 시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사항이나 의논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 평화의 인사

진행자 지금부터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방법은 온 가족이 돌아가며 포옹하고,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세요.

❖ 가정기도를 마치며

진행자 다함께 손을 잡고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정답

① O ② O ③ X ④ O ⑤ X ⑥ O ⑦ O ⑧ X ⑨ O ⑩ X

*가정기도는 서울대교구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모임길잡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는 어떻게 하나요? (소공동체의 4가지 요소)

소공동체 구성원들의 집에서 모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삶의 현장인 구성원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수준에 편차가 있다 보니 나의 살림살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개방할 때에야 삶의 연대가 가능해 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아 부족함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타인의 풍요로움에 마음 두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집에서 모이되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주 모여야 복음이 삶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나누기를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나누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여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초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요 도구” (『교회헌장』 1항)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회의 핵심 단위인 소공동체의 모든 활동 역시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가 바탕 되어야 하며 복음나누기는 그러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줍니다.

활동을 합니다.

활동이 없다면 일반적인 기도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야고 2,26) 이라며 실천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궁핍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셨듯이 이웃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하느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보편교회와 일치합니다.

소공동체는 가장 단위의 교회로 소속 본당과 교구, 나아가 보편교회와 일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성사와 전례에 참여하고 같은 복음을 읽어 하느님 백성 전체 안에서 서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동체를 서로 방문하고, 사목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본당과 강한 유대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공동체모임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보편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지향하는 소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이선화 데레사(산호동본당 1반 반장)

산호동 성당은 도시에 위치해 있으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본당으로 14개의 반모임(소공동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1반은 4명의 소공동체원들로 운영되어 오다 지난해부터 두 분이 함께 하게 되어 지금은 총 여섯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반의 반장을 맡은 지도 15년이 됩니다. 처음부터 반모임이 복음나누기 중심의 소공동체 모임의 성격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본당의 반모임이 그렇듯이 저희 또한 기존의 반모임처럼 구역, 반별로 모여 성당과 관련한 행사를 공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성당에 관한 잡다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모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6여 년 전부터 반모임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반모임 틀은 유지하면서 복음나누기를 하였던 것이지요. 대부분의 교우들이 그렇듯 복음나누기를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차츰 적응이 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잡다스런 이야기로 모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점차 맞들이게 된 것이지요.

기존의 모임 형식에서 단지 복음나누기만 추가되었을 뿐인데 그 복음나누기가 반원들에게 가져다 준 변화는 컸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미용협회 차원에서 미용봉사를 다니시는 아녜스 자매님은 의무감에서만 하던 예전과는 달리 힘들어도 기쁘게 봉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영세자를 많이 낸 것은 아니지만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들께 자연스럽게 성당 이야기를 하며 선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원들 가운데 가장 연세가 많으신 루갈다 할머니는 냉담

중이셨으나 반모임에 참석하시게 되면서 냉담을 풀고 지금은 주일미사에 꼬박꼬박 나오고 계십니다. 이야기하기에 쑥스럽지만 저 또한 복음 나누기를 통해 반원들의 다양한 나누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대하려 노력하는 자신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특히 저희 반원 모두는 함께 반모임 활동을 하시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으로 가시게 된 켈마나 할머니를 한 달에 한번 꼭 방문하여 벗이 되어 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원들이 특별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지내고 있는 교우들이 한 반을 이루어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다 보니 가까이 있는 교우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남’이 아닌 ‘님’으로 여겨져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기쁜 의무감이 생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모임이나 소공동체 모임이 반드시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4명에서 시작하여 6명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여전히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이 함께 모이다 보니 서로 모임에 결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반원과 반모임에 대한 책임감과 결속력이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모임의 그리고 삶의 중심에 들어오다 보니 반모임의 운영과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련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복음말씀을 살아가는 일의 중심으로 삼아, 서로 간에 형제적인 사랑을 나누며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소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 사목국에서는 소공동체 운영과 관련한 체험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소공동체나,
소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다양한 사례를 보내어 주세요.
문의: 055-249-7021~3 메일: mssamok@hanmail.net
우편: (631-860) 경남 마산시 오동동 107-23번지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정광수(鄭光受 · 바르나바)

- 천주교 신앙전파에 노력했으니 -

김길수·사도요한(전 대구가톨릭대학 교수)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웃마을에 사는 천주교 신자인 윤운혜 루치아와 혼인하였다. 당시 조선사회의 통례로는 파격적이었다. 그는 천주교 혼인성사 규정에 따랐고 부모의 반대 때문에 조선사회에서 주고받던 혼인문서는 없었다. 그는 또 집안에서 제사를 강요하는 등 신앙생활에 장애요인을 피하려고 아내와 함께 여주를 떠나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이분이 정광수 바르나바(? ~ 1802)로 경기도 여주 부곡(현 여주군 금사면 도곡리)의 양반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찍부터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권일신 프란치스코에게서 교리를 배워 입교하여 신자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정광수 바르나바는 신자가 된 뒤에 누구보다도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자와 혼인하고 1799년에 그렇게 한양으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한양으로 이주한 정광수 바르나바는 교우 홍시호와 처

형 윤점혜 아가다에게서 돈을 빌려 벽동(현 종로구 송현동)에 머물면서 집안 공터에 교리공부를 함께 할 방을 마련하였다. 그리고는 이웃의 최해두, 조섭 예로니모의 집과는 담을 터놓고 한집처럼 지내며 함께 천주교 교리를 학습하였다. 그해 가을에 주문모 신부를 집에 맞아들여 홍시호, 홍필주, 홍익만 안토니오, 윤점혜, 이용겸 등의 신자들과 함께 겨울까지 여러 날 동안 미사도 봉헌하고 교리공부도 하였다. 그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되자 주문모 신부를 모셔와 유아세례를 받게 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주문모 신부로부터 김건순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무렵 김건순 요사팻은 이종배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바다 건너 북경에 가 서양학자들에게 문의하고 그들에게서 유익한 지식을 얻어다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 하는데 그때까지 김건순은 천주교에 대해 극히 간접적으로 밖에 듣지 못하여 정확한 개념이 없었다. 그는 강이천과 함께 천주교에서 마술의 비밀과 비상한 비법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허망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주문모 신부는 이후 김건순 요사팻의 마음이 바르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복음의 참 정신을 알리고 신기한 문건이나 마술적인 힘에 대한 생각을 일체 버리도록 하였다. 이때 정광수 바르나바는 주문모 신부님의 편지를 김건순 요사팻에게 전하며 그때까지는 비신자로 있던 김건순의 집을 방문하고 천주교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 후 김건순은 영세입교하고 여주의 순교자 이종배

마르띠노, 원경도 요한, 이희영 등이 개종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양반으로 본래 상당한 학식을 지니고 있던 정광수 바르나바는 교회서적을 베껴 신자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 아내와 함께 예수님과 성모님의 상본과 묵주 등을 제작하여 교우들에게 팔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가까운 교우들과 자주 만나 함께 교리를 연구하거나 기도모임을 가졌다. 정광수의 집에서는 침례 때 사용하는 《침례단》《성경광익》《성경직해》와 개인 신심서로 《성경일과》, 영세와 고해성사 준비를 위한 《요리문답》《고해요리》, 묵상집으로 《묵상지장》등과 호교서인 《성세추요》《주교요지》와 같은 여러 종류의 천주교 서적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성상, 성화, 교리서 등을 제작 보급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한국교회사 초기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정광수 바르나바는 사학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즉시 체포령이 내려졌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는 포졸들을 피해 여러 곳으로 돌아다녔다. 처형인 윤점혜 아가다가 체포되자 바르나바는 자기 부부도 머지않아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월에는 그의 집을 급습한 포졸들에게 그의 아내 윤운혜 루치아가 체포당하였다.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피신하던 그도 포졸의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의 피신을 단념하고 스스로 그들 앞으로 나아가 천주교 신자임을 고백

하였다. 그때가 1801년 9월이었다. 포청으로 압송된 바르나바는 여러 차례 배교를 강요당하며 형벌을 받았으나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신자들을 밀고하라는 명령도 거부했다. 그는 “저는 양반의 후손으로 나라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주문모 신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였습니다. …… 또 천주교 성물을 만들어 곳곳에 배포하였고, 교우들과 함께 천주교 신앙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였으니, ……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사학징의 권1 p.121-122) 하고 당당히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형조로 이송되어 사형판결을 받고 고향 여주로 이송되어 1802년 1월 29일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지금, 어농리 성지(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어농리)에는 그의 부인 윤운혜와 함께 가묘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시복이 청원되어 있다.

육화의 신비

– 아빌라의 성 테레사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밖에는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밖에는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밖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소공동체 구성원들의 활동은 말씀의 육화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